

# 오피니언

##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배병삼



어린 아이들 머리통에다 총을 겨냥 쏘아 죽여 놓고도 흐뭇하게 웃음을 지었다는 놈. "사람은 죽였지만,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는다"라고 내뱉었다는 녀석. 신문물을 보니 그에게 극우인종주의자, 정신병자라는 이름을 붙여놓았다. 심드렁하게 노르웨이라는 먼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며 넘어갔다.

얼마 뒤 그 아버리는 사람이 "그를 내 아들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그는 자살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문득 숨이 막혔다. 이건 아니다 싶었다.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서구문화와,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문화의 차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나쁜 짓을 했기로사니 제 자식을 두고 자살했어야 한다고 차갑게 내뱉은 아버지를 보면서 잔인한 서양사회의 속살을 엿본 듯했다.

동양의 전통사회는 달랐다. 춘추시대 중국 땅에 제 아버지가 이웃집 양을 훔친 것을 관계에 고발한 자식이 있었다. 그 나라 임금에 자랑스레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정직하다"라며 공자에게 뱉었다. 공자가 이를 두고, "우리 동네의 정직함은 아버지가 자식의 허물을 감춰주고, 자식이 아버의

죄를 숨겨주는 데 있소이다"라고 답했다는 고사가 그 예다.(논어)

엄혹한 반공법 시대에도 간첩인 아버지를 숨겨준 자식을 처벌하지 못했던 까닭도 이런 전통 때문이었다. 정직이라는 '직선'이, 부모자식 간의 비호, 또는 불법이라는

## 브레이빅의 가족

'곡선' 속에서 피어날 수 있다고 본 공자의 생각을 주목해야 하리라.

서양에서는 고독한 개개인들이 모여 계약을 통해 사회를 이룬다고 본 반면 동양에서는 인간(人間)이란 말에서 보듯 '사람의 사이', 즉 관계를 사람다움의 핵심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차마 아버지가 제 자식을 두고 '자살했어야 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자식이 없는 아버지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득 범죄자가 준비해두었다는 성명서 속에 "부모의 이혼으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대목이 눈에 띈다. 또 "그의 글 속에는 깊은 고독감을 찾아볼 수 있

다"라는 분석에도 눈길이 간다. 그리고 보면 그 녀석은 동아시아의 일본과 한국을 그리워했다고도 하겠다.

나는 그 말이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가부장적 온 가족을 지배하는 봉건적 가족주의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이젠 풍산 시아에도 해체되고 있긴 하지만) "가화만사상"이라, 부모의 자애와 자식의 효행이 빛어내는 가정의 화목을 그리워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다.

지금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범죄자를 두둔하거나, 죄의 탓을 제 아버지에게 돌리려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성장과정에 있

었을 지독한 고독과 단절된 환경에 주목할 따름이다. 스웨덴의 한국인 교수 최연혁에 따르면 "북유럽에는 법인인 브레이빅처럼 이혼한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전체 아동의 15%에 이를 정도로 가족해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가족해체의 증거가 아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결핍, 소외 아동들의 정서불안을 낳아 '제2의 브레이빅'을 양산할지 모른다고 경고한다" 라던 지적에 공감한다.

지금 이 땅에서도 가족은 해체되고 있다. 지난 겨울, 이혼 가정에서 성장한 젊은 시나리오 작가가 홀로 굶어죽었던 것은

그 한 상징이다. 이웃 일본에는 장례식 없이 곧바로 화장하는 직장(直葬)이 대도시에서는 30%까지 급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도 23%에 달하였고, 홀로 죽어가는 '고독사' 역시 꼬리를 물고 있다. 서로에게 이웃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말장난을 하자면 인(人)만 남고 간(間)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예로부터 환과독고(獮寡獨孤)라, 홀아비·홀어머니·독거노인, 그리고 고아는 국가가 거둬야할 최우선 복지대상이었다. 이게 뺑자의 말이니 2300년 전의 일이다. 유교국가인 조선에서도 정치의 급선무는 언제나 가족의 보전이었다.

반면 지금 이 땅은 가족에 대해 무관심하다. 국가나 국민이나 모두 가족의 존재를 당연시하는 듯하다. 하나 가족은 자연적인 제도가 아니다. 가구도 보살펴야 겨우 살아남는 인공적인 공동체다. 전정과 기근, 경제적 위기에 가장 쉽게 파괴되는 것이 가족이었다.

지금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사태는 국가가 보장하는 물질적 복지만으로는 인간 개인의 고독을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여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질곡으로 여기고서 탈출하려 했던 가족이, 실은 돈으로는 환산하지 못할 큰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영산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고

### 내와 지자체·지역민 상생협력 필요하다



송태호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급속한 인구 증가, 도시화로 전국 대도시는 아파트 숲으로 뒤덮이고 있다. 1960년대부터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어느 도시에서나 '주공'아파트를 쉽게 만날 수 있게 됐다. 일부 아파트는 노후화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토공'은 번듯한 공장 하나 없는 이 지역을 제조업 메카로 만들기 위해 곳곳에 산업 단지를 조성했다.

조선산업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 대륙국가산단, 광주 하남·첨단산단, 광양제철연관단지 등 토공이 조성한 산업단지에는 전

차·기계·첨단 제조업 공장들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

또 '광주 수완'이라는 명품도시와 풍암·신항·동림·운남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에 기여했다.

이 사업들은 그동안 주공과 토공이 일궈낸 업적이다. 하지만 주공과 토공의 경쟁적 중복투자는 비효율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효율적 국토 개발과 주택공급을 위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하나로 주공과 토공을 통합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했다.

통합 시너지를 기대하며 출범한 지 2년이 됐지만 과다한 부채로 우려를 사고 있다. '엄청난 부채로 인해 흑역 국가경제에 짐이 되지 않을까', '하루 100억 원이 넘는 이자와 엄청난 부채를 어떻게 갚을까', '회사는 온전하게 굴러갈 수 있을까' 등등.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LH는 그동안 휴일을 잊은 채 비상경영을 하고 있다. 휴가와 임금을 반납하고, 인력 감축과 사업 조정을 통한 경영 내실화에 여너지를 쏟고 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 경영 정상화를 이뤄 공기업 선진화의 롤모델을 만들 것이다. 사업 조정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사업 조정 대상이 없어 다행이다. 대형 국책사업과 서민주거 복지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절대적 공기가 부족한 가운데다 여수세계박람회와 정상 개최될 수 있도록 부지조성공사는 물론 박람회기간 동안 숙소도 이용될 아파트 건설 공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도 단지 활성화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차질 없이 들어설 예정이며, 단지 내 공동주택·단독주택·주차장 부지도 순조롭게 매각돼 혁신도시 앞날은 희망적이다.

전세난과 주택난으로 내집마련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에 올해에도 LH 아파트 6000여 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서민들을 위한 새로운 국민임대아파트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 전에 비해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투자동력도 미흡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는 낮아졌다. 하지만 빠른 경영정상화를 통해 LH가 통합의 시너지를 제대로 발휘하면 광주·전남 또한 많은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에 부족한 서민주택건설은 물론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산업단지 조성 등 LH의 역할이 크고 해야 할 일도 많다.

이 모든 사업은 지역민들의 협조와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LH와 지자체, 지역민의 상생협력체계가 더욱 절실하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

## 의료 칼럼



손영해

등산 인구와 예전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약수를 이용하는 등산객 수도 늘고 있다.

등산을 하다가 갈증이 나면 물이 먹고 싶은데 가져온 생수가 바닥난 경우 잠시 고민스러워진다. 약수를 발견하기는 했으나 수질검사성적표가 붙어있지 않는 경우 되도록 갈증을 참는 것이 좋겠지만 심한 갈증을 느낄 때는 어쩔 수 없이 약수를 마시게 되고 간혹 이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약수의 수질평가항목에는 일반세균을 포

## 약수 바르게 마시기

함한 대장균의 정도, 기생충 검사 및 병변의 오염도를 평가하는 암모니아성 질소함량, 퇴비 과다사용에 의한 질산성 질소함량, 수은이나 카드뮴, 비소와 같은 유해 중금속 함량 등이 포함된다.

구제역 매몰지가 있는 곳에 가까운 약수터의 경우 침출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무리 깨끗한 계곡에서 흐르는 약수라도 수질평가표가 없는 약수는 마시지 않는 편이 좋다. 간혹 스파루가눔이나 이질아메바와 같은 기생충에 오염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스파루가눔은 뱀이나 개구리를 생식할 때 감염되지만 스파루가눔이 감염된 물벼룩이 사는 계곡물을 무심결에 먹고 감염될 수 도 있다.

스파루가눔은 인체의 모든 장기조직에 침투할 수 있고 감염 후 수십 년 후에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그 중 뇌 조직에 기생충이 침투한 경우 심각한 두통이나 발작, 뇌경색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수술적 제거만이 치료법이다.

이질아메바에 오염된 물을 먹은 경우 가벼운 구역나 구토에서부터 고열, 복통, 점액질이나 혈변이 섞이는 설사와 같은 심한 장염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대장에 있는 이질아메바가 간으로 이동해 간농양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치료법은 수분공급 및 항생제치료이다.

농가에서 버려지는 농약병이나 제초제, 야산에 불법 매립되는 산업쓰레기, 도시화에 의한 수질과 토양의 오염으로 인해 지하수와 약수의 수원이 오염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비가 많이 온 후 먹는 약수는 빗물을 그대로 먹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삼가야 한다.

깊은 산이라도 석회성 성분이 녹아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므로 맑고 깨끗한 암반수 물이라고 마냥 안심할 수 없고 항상 수질평가 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능한 한 약수를 끓여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후화된 약수 파이프는 교체하고 물 저장탱크의 위생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약수터의 배수를 원활히 하고 쓰레기를 없애 세균번식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약수터 수도꼭지의 정기적인 교환은 필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약수 컵의 철저한 소독도 중요하다. 약수터 컵이나 바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개인용 물병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

약수터에서 물을 먹은 후 다시 뺏는다거나 침을 뱉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 질병을 치료한다는 의미를 지닌 귀한 물인 '약수'를 깨끗이 보존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어디서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약수의 상례를 살린 뒤 골라 마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계로365병원 소화기센터 원장>

이 들어 결국 70만원을 내고 1대1 상담을 했다.

하지만 이렇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을 받더라도 이들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어디까지 신뢰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대입제도가 너무 복잡해지다보니 입시설

명화면으로는 내용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1대 1 고액컨설팅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2012년도 입시 때는 학부모들이 이런 비용까지 쓰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김옥민·순천시 인제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 시설

### 집중호우에 못버티는 문화전당이라니

광주시 동구 구도심에 시간당 100mm 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일대가 침수되는 등 재해 우려가 크다고 한다. 문화전당의 하수처리방식이 우수(빗물)·오수(하수) 분류식인 반면 주변 도로는 합류식으로 서로 다른데다 하수처리용량도 큰 차이를 보이면서 병목현상이 빚어져 역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화전당 내 우수관과 오수관의 직경은 1200mm인데 비해 급남로와 제봉로 좌우에는 각각 합류 방식의 1000mm관과 600mm관이 매설돼 있어 관로상 차이가 크다. 또한 문화전당은 우수와 오수를 모은 뒤 급남로 등 주변 도로 지하 4m에 매설된 하수관으로 끌어올려 배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구도심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수관 차이에 따라 곧바로 역류로 이어져 문화전당 일대가 물바다로 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문화전당은 전시관 등 주요 시설의

대부분이 지하 20m에 들어서는 만큼 침수에 따른 기능 마비 등 심각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전당 관리단은 하수처리방식과 용량의 차이로 인해 문화전당이 재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전당 내부 하수관이 아무리 잘 매설되더라도 주변 도로의 하수관이 이를 받아낼 수 없다면 물가피해라는 예가다. 건립비만 무려 7984억 원이 들어간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전당이 집중호우에 견디지 못한다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주시와 문공부 소속의 문화중심도시추진단 등 관계기관은 지금부터 하수시스템 정비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주변 도로의 하수관 정비사업이 자체 단체의 소관으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크다면 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함께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국립문화전당이냐 만큼 정부도 지원을 의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쌀값 하락정책이 물가 대책일 수는 없다

정부가 쌀값 하락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물가비상 속에 농림수산식품부는 군수용과 사회복지용 비축미까지 방출한 데 이어 쌀값을 내린 미국종합처리장(RPC)에만 배 매입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쌀값을 하락시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진정시켜보겠다는 속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쌀값 하락 정책은 물가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오히려 물가도 못 잡고, 죄없는 농민만 희생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지금의 물가 고공행진은 국제 원자재가 급등과 정부의 정책 실기(失機)가 근본 원인이자 결코 쌀값 때문은 아니다. 농산물값 상승만 해도 집중호우와 수해로 인한 채소류 등 신선식품이 주드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산지쌀값은 전년 같은 기간과 수확기보다는 15% 안팎으로 올랐지만 지난 2008년과 2009년 평균 가격보다는 여전히 낮다. 따라서 지금 쌀값은 오른 게 아니라 지난 2009년 이후 2년3개월째 계속된 가격 폭락을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다.

또한, 정부의 비축미 방출은 쌀값 하락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물이 들어 40만t이 넘는 비축미를 방출했지만 산지 및 소비자 쌀값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다. 비축미 방출이 낙찰업체와 중간 도매상들의 배만 불러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무원칙한 비축미 방출로 군수용과 사회복지용 쌀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물가 안정은 화급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로서도 물가 잡기에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실효도 없고 농민만 희생시키는 탁상공론식 정책은 안 된다. 정부는 쌀값 하락 정책이 물가 안정대책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최근 대한항공의 독도 상공 시험비행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이 직원들의 대한항공 이용금지 조치를 내린에 이어 일본 자민당 소속 의원 3명이 울릉도를 방문하려다 김포공항에서 퇴짜를 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방위백서 발표는 그것과는 다르다. 엄중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일회성 대응이 아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근거들을 꾸준히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의 실질적인 독도 지배에 이러한 노력이 합쳐지면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할 것이 자명하다.

정부의 강경하고 일관된 대응과 함께 국민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지난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된 뒤 이 기술을 7년째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강경 자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 내 정치 불안과 입지가 줄어들어 자민당 보수우익 결집을 위한 정치

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충돌을 일으켜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하는데 이용하려는 이들의 속셈을 감안할 때 정부가 그들의 입국요도를 방문하려다 김포공항에서 퇴짜를 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방위백서 발표는 그것과는 다르다. 엄중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일회성 대응이 아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근거들을 꾸준히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의 실질적인 독도 지배에 이러한 노력이 합쳐지면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할 것이 자명하다.

정부의 강경하고 일관된 대응과 함께 국민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지난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된 뒤 이 기술을 7년째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강경 자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 내 정치 불안과 입지가 줄어들어 자민당 보수우익 결집을 위한 정치

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충돌을 일으켜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하는데 이용하려는 이들의 속셈을 감안할 때 정부가 그들의 입국요도를 방문하려다 김포공항에서 퇴짜를 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방위백서 발표는 그것과는 다르다. 엄중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일회성 대응이 아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근거들을 꾸준히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의 실질적인 독도 지배에 이러한 노력이 합쳐지면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할 것이 자명하다.

정부의 강경하고 일관된 대응과 함께 국민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지난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된 뒤 이 기술을 7년째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강경 자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 내 정치 불안과 입지가 줄어들어 자민당 보수우익 결집을 위한 정치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제11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